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강준석(김정연B), 공인석(김영숙), 공희라,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길자, 김누리헌, 김미경, 김정배(임승주), 김지한(유소정), 김춘화, 김희규, 맹관순, 방현욱(신영신),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유광희, 윤병호(양영욱), 윤예원, 이기자, 장명원(김옥자), 정경석(박지순), 정영심, 채희춘(황영욱), 무 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강봉석, 공인석(김영숙), 김경엽, 김근봉, 김길자, 김만형, 김순옥, 김원재, 김정배(임승주), 김태준(박복순), 박부웅, 박영순, 백성원(안지영), 서진화(최봉순), 손재아, 송부현(김영진),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옥남, 임형문(박금옥), 장명원(김옥자), 정경석(박지순), 정영심, 채희춘(황영욱), 황성연(홍금옥).

☞ **감사헌금**  
이진우, 김성중(윤현영), 김병을(이영숙), 김성찬, 김정연B, 김태수, 김현구(서재희),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종삼(이명원), 백성원(안지영), 석애자, 안금자, 윤정호, 이춘호, 이춘취, 최선미, 황영욱, 최태남, 고척5목장.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김민성, 김정훈,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래,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영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설아, 이옥남, 임현희,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황영욱, 김민혁, 무 명.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5년 제 3주 : 출애굽기 6 - 28장			
주 일	출애굽기 6 - 10장		
월요일	출애굽기 11 - 13장	목요일	출애굽기 20 - 22장
화요일	출애굽기 14 - 16장	금요일	출애굽기 23 - 25장
수요일	출애굽기 17 - 19장	토요일	출애굽기 26 - 28장

사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대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춘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아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 위 자	할 려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켈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이집트: 김진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욱 A X 국: 김해월 A X 국: 박동권 김명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태 국: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5. 1. 11 주일 예배 설교

어리석은 자들의 비난을 경계하십시오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9-12절 설교 : 이진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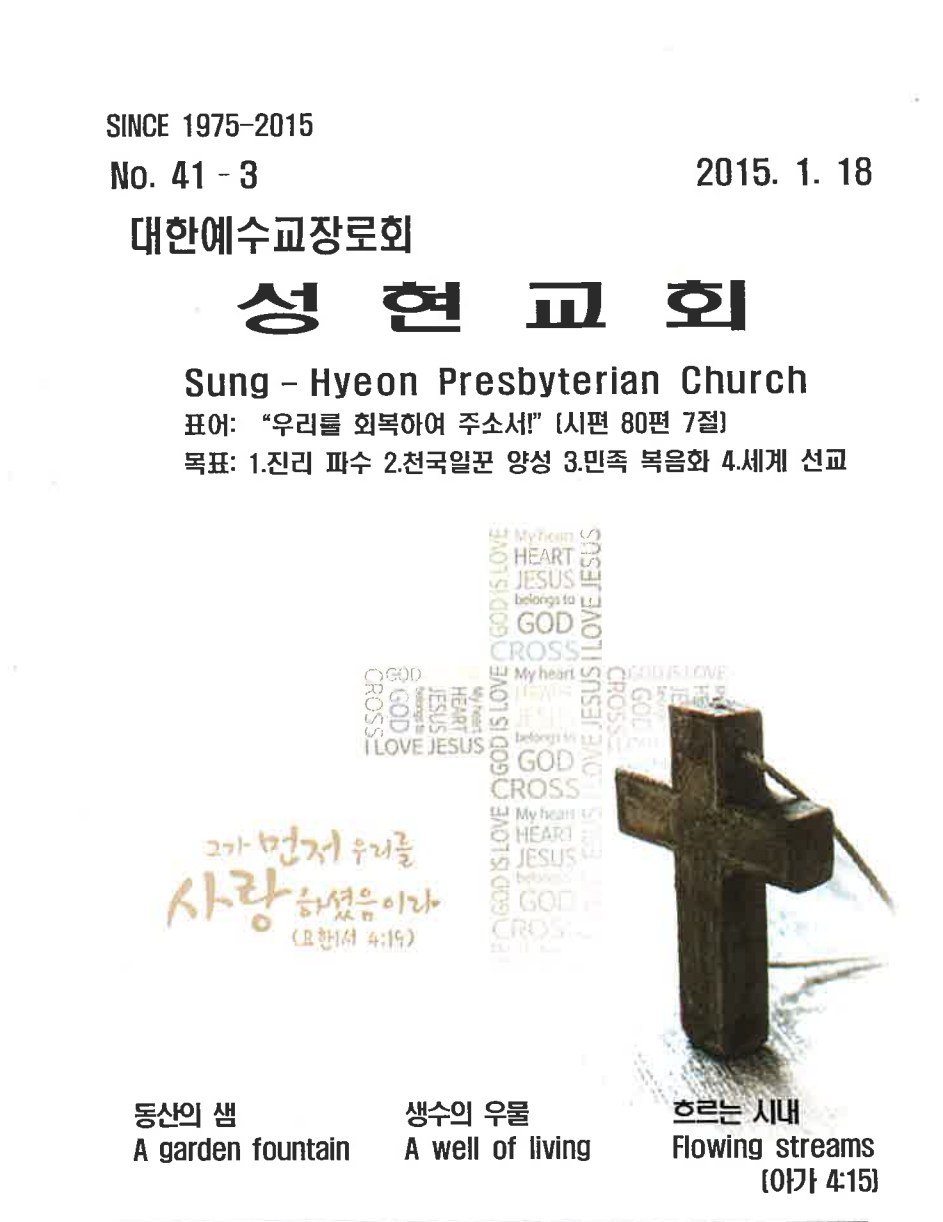
사도바울은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비난을 받은 이유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비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비난하고 쓰러뜨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 모두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겁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9-10절).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는 변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책망하며 나무라며 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모든 것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싸움을 사도바울은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렇기에 바울은 지혜롭게 이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와 관용의 자세를 보인 바울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비난했지만 이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생긴 일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요 비난과 책망하는 자가 되었음을 밝히며 그들에 대하여 오직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12절). 예수님 또한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 백성 앞에서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온유와 관용 그리고 겸손으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 형편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육체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이론, 부정한 신앙, 그들의 거짓된 믿음과 행실을 파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는 사도바울의 거룩한 노력이었고, 거룩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연약하다고 비겁하다고 비난합니다. 과연 바울이 연약한 자요, 비겁한 자였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강하고 용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강함과 용기는 진실한 권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 영적인 권위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권위자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권세는 파하거나 헐기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세우려고 주신 권세고 살리는 권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말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지를 쓰며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에 더 큰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을 살피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고전 2:14). 말씀과 기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판단이 옳은가를 늘 확인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우리지만 매일매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 기도와 불기동으로 인도하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은혜가운데 서며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비난받고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줄 알아 온유와 관용과 겸손으로 선으로 악을 이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5

No. 41 - 3

2015. 1. 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ln Woo
-----------------------	---------------------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http://www.sunghyeon.or.kr)

순시	1부	2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1월	기도	기도	성경봉독	사회	기도	기도
1주(4일)	박부웅 집사	이태일 장로	송백현 권사	담임목사님	김병을 장로	송백현 권사
2주(11일)	윤영준 집사	정기성 장로	김옥자 권사	이태일 장로	박부웅 집사	김옥자 권사
3주(18일)	박권제 집사	윤조훈 장로	곽정순 권사	정기성 장로	윤영준 집사	곽정순 권사
4주(25일)	최상걸 집사	이일로 장로	박복순 권사	윤조훈 장로	박권제 집사	유미란 권사
예배안내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